

10월 지육시세는 2,700원/ kg 예상



매년 10월은 년 중 최저의 돈가를 기록하는 달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10월이 연중 최저 돈가를 기록하는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 10월에 최저 돈가를 나타내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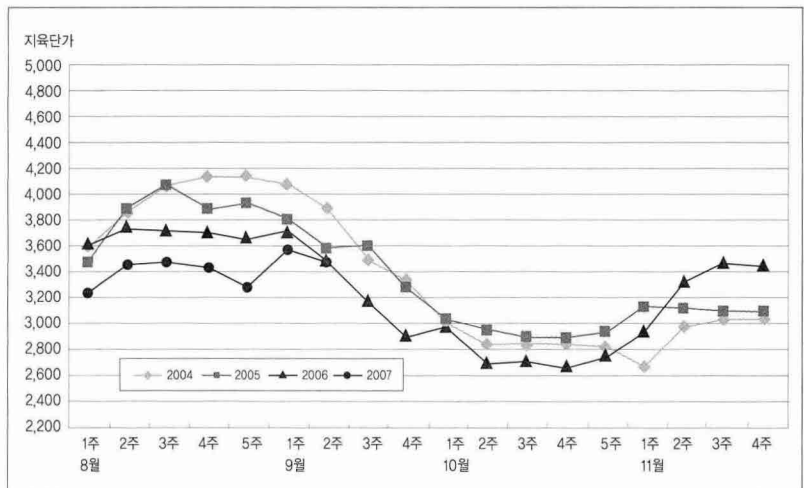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계절적으로 돼지의 육성에 좋은 환경을 들 수 있다. 4월에 분만하여 자돈이 자라기 좋은 봄철에 분만한 자돈들은 다른 시기에 태어난 자돈들 보다 육성율이 좋아 출하두수가 늘어나며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성장 지연된 비육돈이 9월 하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천고마비를 느낄 만큼 기온이 내려가고 나면 사료 채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비육돈의 성장은 하루가 다를 정도로 무럭무럭 자라나 여름철 성장 지연에 대한 보상 성장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서 출하체중인 110kg대에 도달한 돼지가 크게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농장의 출하두수는 늘어나 출하지수가 110대를 넘나들며 년 중 최고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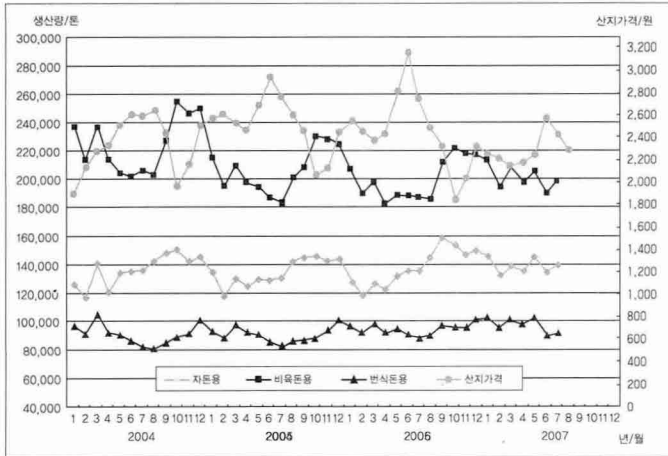
반대로 추석이 지나고 2~3주 동안은 연중 가장 낮은 소비를 보이는 시기가 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추석 때 만들어 놓은 음식과 선물세트를 먹어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은 모든 음식료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도 변함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석 이후 소비 감소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돼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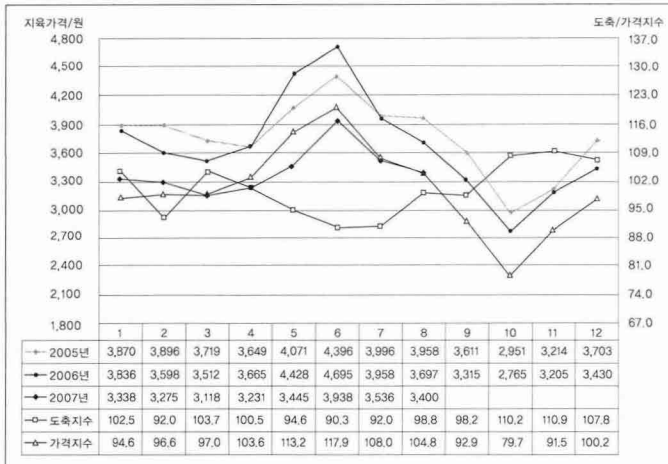
소비 급감과 출하 급증이 나타나면서 육가공 업체는 판매 부진에 따라 도축두수를 줄이고 농장은 출하체중에 도달한 돼지를 팔기 위하여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면 결국 도매시장의 도축두수가 증가되고 가격은 공급의 증가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 동향

동기보다 감소하고 7월에는 2.4% 증가에 그쳐 출하두수의 급증은 예년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자연 증가분은 나타낼 것으로 보여 과연 추석 이후 시장에서의 소비 급감 기간과 기간 폭에 따라 돼지 가격의 등락이 예상된다.

다만 돼지고기 수입은 금년 1월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7월과 8월에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8월까지 누계로는 182,13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돈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수입 돈육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쇠고기 수입은 금년 8월까지 134,466톤으로 전년동기 19.1% 증가한 추세를 보여 전체 육류 공급량의 증가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금년 10월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돼지 가격은 소비 급감과 돼지 출하 물량 증가가 겹쳐지면서 지육단가는 2,700원으로 단가 하락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양근**

에 따라 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돼지 가격이 연중 최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돼지고기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도매 상인을 중심으로 한 돈육의 냉동 보관 수요가 발생한다.

돼지고기 가격이 가치 기준 이하로 급락하게 되면 냉동 저장 후에 국내산 돼지 가격이 상승하는 내년도 상반기에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상인들이 있다. 이에 따라 수매 비축물량이 증가하여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돼지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세로 반전하게 된다.

8월의 돼지 도축두수는 1,149천 두로서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금년 8월까지 누계 돼지 도축두수도 8,937 천 두로서 전년동기보다 4.9%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금년은 출하두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인 것은 9월과 10월 출하를 나타내는 단기 지표인 3개월 전 자돈 사료 생산량이 금년 6월에는 -1.4% 전년